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7호 현대불교  
2008년 7월 9일(음력 6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일체제불의 마음 자체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난다!



그림 · 최주현

마산 법회를 위해서 큰스님께서 아주 극치의 설법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교연합회 총무부장 스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제자라면 너 나를 분별하지 말고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어떠한 문제를 막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기독교나 가톨릭교는 단결이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는 좀 더 잘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불(佛)이라는 것은 공존, 풀 한 포기 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 전달을 하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갑니다. 무전통신 또는 통신으로 전달을 하고 돌아가고요. 이렇게 공생 공용 공체 공화하고 돌아가는 참나의 이 진리를 볼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에 전달과 전달을 하는 것을 교(敎)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그렇게 미묘하고 광대하고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는 겁니다. 어느 종교라도 불교 안에 들어 있지 불교 바깥에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고 스님 노릇 하는 사람들만 불교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일체 만물만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바로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등 동물로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인해서 바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각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수화풍으로 동져져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써 모두... 지금 전력도 물에서 얻죠? 지수화풍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분히 우리들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리, 주어져 있다는 사실, 바로 자기가 자기를 안다면 천차만별의 모든 용도에 따라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 마음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거와 육체가 움쭉거리는 삼합이 하나로써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써 육체를 다스리면서 또 마음은 마음을 내게 할 수 있

는 근본과 더불어 삼합이 한데 합쳐서 참나에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걸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도 이름이요 자아도 이름이요 불성도 이름이요 주인공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닌 이름이라면 정말 그 길을 손살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이전 그 자체가 바로 나의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까요? 한마음의 근본! 영혼의 근본이라고도 하죠. 즉 뿌리 말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 나무가 뿌리로 인해서 모든 영양을 흡수해서 푸르게 살고 있듯이 여러분도 영혼의 근본 뿌리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전 그 자체, 영혼의 근본이 자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차원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겠지요.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들고 나오게끔 형성시키는 것도 자기의 그릇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자기가 영혼의 근본으로서 자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지금은 정자 단자라고 그러죠? 자기 그릇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같은 그릇의 한 부부, 즉 인간의 부부라든가 개, 짐승의 부부라든가 곤충의 부부라든가 어떠한 부부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형성시켜서 나오는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붙어 돌아가는 게 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겁니다. 영혼은 근본이 아닙니다. 영혼은 바로 업식에 의해서 또 그림자처럼 붙어서 형성되니까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벌써 몸에 결부가 돼서 나오죠. 이게 생각하면 아주 복잡합니다만 복잡하더라도 잘 들어 보세요. 그렇지만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탄생을 했으니 이 몸뚱이는 그 업식의 집합소란 말입니다. 몸뚱이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아주 어리석죠. 몸뚱이는 마음의 심부름꾼이자 관리인이자 바로 자기 자생증생들이 있는 집합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주어지는 거니까 누구 탓을 할 것 없고 중요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 업식 속에서 뭐든 자기가 한 대로, 즉 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이 모두가 합쳐져서 차례차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죠.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인간의 컴퓨터는 오신통으로 인해서 자동적인 컴퓨터가 됩니다. 오신통이란 자기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고 그 구멍이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업식이란 말입니다. 업식에 의해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만 과거가 아니라 어저께도 과거요 아까도 과거요 한 시간 전도 과거요 일 초 전도 과거란 말입니다.

몸속에 자생증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자생증생들과 더불어 한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 자체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위를 받들고, 아래로는 자기 자생증생들을 다스려서 제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스려서 제도를 안 하면 항상 번뇌 망상과 모든 것에 떠달리게 되니까 제도를 해서 그 그달리는 굴레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바로 상대가 있는 거고 세상이 벌어졌고 우주가 있는 거고, 우리가 모두 불교를 숭상하게도 됐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부터 알아야 하고, 먼저 나부터 믿어야 하고, 먼저 나부터 발견해서 자기의, 즉 이전 부(父)와 현재 자(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관습이나 업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너희 마음대로 쓰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질 못했죠. 아니, 내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했죠.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중생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부처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처라는 이름은 어떤 개별적인 하나를 세워 놓고 부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체제불 속에 일체 중생이 들어 있고 일체 중생 속에 일체제불이 들어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이고 그 한마음조차 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부모자식기간이나 형제기간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했다,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자식이 공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말로다가 몸을 붙들려고 한다면 절대로 붙들어서 안됩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만 절대적으로 둘이 아니게 되고,

26면으로 계속

발행 한 주만에 재판 인쇄



신심 | 239P 정가 10,000원  
원력 | 285P 정가 10,000원

자재로운 스승, 일타 대중사와의 인연  
해인사 장경각에서 108만배 기도 성취  
2천번 넘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 방방곡곡 설법  
제주 약천사 창건  
단양 도락산 광덕사 백만불전 건립불사

제주 약천사 해인 스님의 신심, 원력 이야기

# 신심, 원력

설법 스님(덕승총림 수좌) \_ 해인 선사가 평소에 실천궁행했던 경험들을 책으로 펴냈다.

저기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부대중을 향하여 고구정령 토설했던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로 짜여 있다.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_ 사람들을 그토록 감동시키던 그 법문이 이제 글로 화하고 책으로 엮여져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고은(시인) \_ 장엄한지도 여기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라잡이를 만나 뵈니 트렸구나. 이 길 따라 가고 가면 되는구나.

## 전 언론이 격찬, 격찬!!!

**한국일보** \_ 오직 만구 어디에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아났을까. 책에는 그 고행의 과정이 별다른 자랑이 아니라는 듯 소개되어 있다. **경향신문** \_ 책에는 스님의 신심과 원력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스님이 법문 내용을 토대로 쓴 글들이다. 그의 법문은 유쾌하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하다. **매일경제신문** \_ 해인 스님 법문이 시작되면 불자들은 웃음과 감동이 번갈아 교차한다. 그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번에 책을 한꺼번에 두 권을 낸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 **한국경제신문** \_ 불교계에서 '포교제일의 부부나 존자'로 불리는 그가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펴냈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다 보면 108배를 넘어 140배, 150배가 된다고 한다. **세계일보** \_ 그가 펴낸 수행세이에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신심과 효심, 용기를 불끈불끈 솟게 한다. 때론 배꼽을 잡게하는 솔직한 이야기도 쏟아져 나온다. 또한 인과의 진리가 담겨 있어 현대인의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데에도 친절한 길 안내가 되겠다. **국제신문** \_ 해인 스님은 108만 배 이후 삶에 큰 변화를 느끼면서 설법 질하는 법사로 통하고 있다. 감동을 주는 스님의 법문이 알려지면서 한 달에 보름 이상은 전국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불교신문** \_ 왜 책 제목이 신심과 원력인가. 스님은 이렇게 풀이했다. "신심은 불심(佛心)이요 원력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스님이 책을 발간한 이유 는 해마다,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현대불교신문** \_ 해인 스님이 그간 걸어온 수행의 길에서 스스로 지켜 온 신심의 근거와 그 기원의 불기(佛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법보신문** \_ 책은 법문의 향상을 빌었지만 해인 스님의 수행의 향기를 진하게 담고 있다. 서문을 장식한 고은 시인의 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따라가 볼 일이다.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